

# 전문대학에서의 보건행정학 교육

이 준 협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보건행정과

## I. 서 론

2002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각 대학별로 정원미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입학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면서, 2002년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수 보다 많아져, 각 대학별로 학생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3년도 전문대학 입시결과 총 모집정원 285,896명의 17.6%인 50,172명이 미충원되었다. 앞으로 각 대학들이 현재와 같은 모집정원을 유지하는 한 정원미달 사태는 지금 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대학 정원의 미달사태는 1990년대 들어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수가 급격히 늘어남과 동시에 각 대학별 입학정원 또한 증가하는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대학의 입학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1990년대 이후 매년 70만명 전후가 배출되어 오다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타 분야보다는 늦게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지만, WTO 시장개방에 대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행정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의 장이 병·의원등 의료기관으로의 진출이 많은 추세에서 WTO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보건행정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하에서 대학 특히 전문대학 보건행정 관련 학과<sup>1)</sup>에서 보건행정

1) 원칙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보건행정(학)과 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최근 학과 명칭을 달리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교수하고 있는 학과가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문대학에서의 보건행정과만에 국한하지 않고 의무행정과, 병원경영과, 보건의료정보과 등 관련 학문을 하는 모든 과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 모든 (학)과를 “보건행정 관련 학과”라 함.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 왔으며 교육해 왔는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보건행정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보건행정학의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한정해서 보건행정학의 교육을 다루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황(전문대학의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연도별 입학정원, 고등학교 졸업자수대비 대학 입학 정원추이, 최근의 신입생 등록률 등)과 장래 대학의 입학자원이 될 19세 인구의 장래추계인구 등을 통해 그간 전문대학이 얼마나 양적 증대를 해 왔으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원미달사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관련 학과의 현황, 교과과정 그리고 취업 및 진로 등을 살펴보고, 현재 보건행정관련 학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보건행정관련 학과에서의 보건행정학의 교육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교육 현황

2003년 현재 전문대학수는 158개교, 총 학생수는 약 93만명이다.(표1 참조).

그간 전문대학의 학교수와 학생수는 급격하게 팽창 해왔다. 먼저 학생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80년 16만여명, '90년 32만명 그리고 2000년에는 91만명을 넘어 2002년에는 96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전문대학의 학생수는 최근 30여년간 매 10년 단위로 2~3배의 학생수 증가를 보여왔다. 이에 반해 전문대학의 학교수 증가는 90년에 117개교에서 2003년 158개교로 1.4배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의 양적 팽창은 학교수 증가에 의한 것보다는 개별 전문대학별 학생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문대학이 학과 증설과 입학정원을 늘려 온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70년 24.2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77.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학생수 증가에 비해 교원의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1>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교수 및 총 학생수 추이

(단위: 개교, 명)

연도별	전문대학					대학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인당 학생수	교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인당 학생수	교원
1970	65	33,483	1,385	24.2		71	146,414	6,526	22.4	
1975	101	62,866	2,284	27.5		72	208,986	8,475	24.7	
1980	128	165,051	4,866	33.9		85	402,979	11,796	34.2	
1985	120	242,117	5,362	45.2		100	931,884	19,808	47.0	
1990	117(1.00)	323,825(1.00)	6,139	52.7		107(1.00)	1,040,166(1.00)	25,337	41.1	
1995	145(1.24)	569,820(1.76)	8,426	67.6		131(1.22)	1,187,735(1.14)	33,938	34.5	
2000	158(1.35)	913,273(2.82)	11,707	78.0		161(1.50)	1,665,398(1.60)	41,943	39.7	
2001	158(1.35)	952,649(2.94)	11,897	80.1		162(1.51)	1,729,638(1.66)	43,309	39.9	
2002	159(1.35)	963,129(2.97)	12,156	79.2		163(1.52)	1,771,738(1.70)	44,177	40.1	
2003	158(1.35)	925,963(2.86)	11,974	77.3		169(1.58)	1,808,539(1.74)	45,272	39.9	

이상과 같은 전문대학 및 대학의 양적 증대는 그간 대학 입학정원이 매년 꾸준히 늘어 왔기 때문으로(표2),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은 '80년에 약22만 명, '90년 약 39만 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72만 명으로 늘어났다.

2003년 현재 전문대학수는 158개교,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85,922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정원(719,570명)의 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1980년 인구 1만명당 140명 수준에서 2001년 약 734명으로 증가하였다(표3 참조).

<표2> 고등교육기관<sup>1)</sup>별 대학수 및 입학정원(2003학년도)

연도별	대학교		전문대학		기타 <sup>2)</sup>		계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1970	71	37,190	65	11,360	16	6,000	153	54,550
1975	72	52,200	101	26,685	17	15,440	190	94,325
1980	85	116,700	128	84,455	12	22,680	225	223,835
1985	100	165,780	120	97,090	18	42,586	238	305,450
1990	107	196,550	117	130,520	18	61,440	242	388,510
1995	131	253,180	145	215,470	29	97,210	305	565,750
2000	161	314,410	158	294,175	33	104,190	351	712,775
2001	162	316,780	158	292,035	33	104,495	352	713,270
2002	163	324,309	159	293,174	33	105,800	354	723,283
2003 <sup>3)</sup>	180	332,055	158	285,922	20	101,593	358	719,570

주) 1) 고등교육기관중 대학원 제외

2) "기타"에는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합한 수치임

3) 대학교에 교육대학 포함

<표 3> 고등교육기관1) 재학생수 추이

연도별	인구(천명)	재학생수(명)	재학생수 (인구10,000명당)
1970	32,240	201,436	62.5
1975	32,280	318,683	98.7
1980	38,123	534,442	140.2
1985	40,805	1,451,297	355.7
1990	43,390	1,691,681	389.9
1995	45,093	2,343,894	519.8
2000	47,275	3,363,549	711.5
2001	47,676	3,500,560	734.2

1)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을 포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2002.

전문대학의 2003년 입학정원 285,922명 중 보건계열은 약 2만7천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표4).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수 대비 대학입학(전문대학 포함) 정원 비율이 87%를 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9명 정도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실제 대학 진학률은 이보다는 낮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수보다 대학입학정원(전문대학 포함)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학별로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정원미달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 4> 전문대학의 계열별 입학정원(2003년)

계열		입학정원(%)
인문사회		73,334 ( 25.6)
자연과학	농업	1,860 ( 0.7)
	수산해양	120 ( 0.0)
	보건	27,126 ( 9.5)
	간호	8,130 ( 2.8)
	가정	17,351 ( 6.1)
	소계	54,587 ( 19.1)
공학		127,951 ( 44.8)
예,체능		30,050 ( 10.5)
총계		285,922 (100.0)

<표 5> 고등학교 졸업자수 대비 대학입학 정원 비율 추이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자수(A)	대학입학 정원 (B)	(B/A)*100	진학률
1980	467,388	223,835	47.9	27.2
1985	642,354	305,450	47.6	36.4
1990	761,922	388,510	51.0	33.2
1995	649,653	565,750	87.1	51.4
2000	764,712	712,775	93.2	68.0
2001	736,171	713,270	96.9	70.5
2002	670,713	723,283	107.8	74.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전문대학에 한정해서 최근의 전국 각 지역별 전문대학 신입생 등록률 추이를 보면 <표6>과 같다.

2003년도의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2002년에 비해 약 7천명 이상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생 미등록률은 약 18%(약 5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시·도 별로 보면 지역간 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61.9%), 전북(66.4%), 강원(66.9%) 등 이들 3개 지역은 신입생 등록률이 모집정원의 2/3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역으로 대학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는 대학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전남, 충북, 제주, 대구 등도 신입생의 미등록이 심각하여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만 덜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표6> 지역별 전문대학 신입생 등록률 추이

구 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모집 정원(명)	등록율(%)	모집 정원(명)	등록율(%)
서울	18,832	100.0	18,561	99.9
부산	25,212	96.6	22,798	82.1
대구	19,476	91.8	19,334	73.8
인천	11,364	99.9	11,284	99.7
광주	13,346	90.8	13,272	81.2
대전	12,512	97.7	12,444	81.9
울산	3,670	95.2	3,615	92.3
경기	69,482	100.0	69,299	98.1
강원	11,245	90.8	11,402	66.9
충북	11,627	94.5	11,492	72.1
충남	12,087	97.7	11,921	82.3
전북	14,253	77.2	14,022	66.4
전남	15,831	78.7	15,623	70.8
경북	31,709	78.1	31,395	61.9
경남	17,044	86.2	13,965	79.4
제주	5,454	85.4	5,442	73.2
계	293,144	92.2	285,896	82.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강창렬(2003)에서 재인용

전문대학 및 대학의 취업률 추이를 보면(표7),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2000년 이후 80%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학의 취업률은 60%를 밀돌고 있다.

1980년을 경계로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온 반면, 대학 취업률은 1980년까지는 70%를 유지하다가 그 후 감소하여 대학 졸업자의 약 절반 정도만이 취업을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7> 전문대학 및 대학의 취업률 추이

연도별	취업률	
	전문대학	대학
1970	72.6	70.6
1975	58.3	71.8
1980	42.4	72.3
1985	57.2	52.1
1990	71.8	55.0
1995	74.2	60.9
2000	79.4	56.0
2001	81.0	56.7
2002	80.7	60.7
2003	79.7	59.2

(주) 취업률=(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미래의 대학입학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19세 인구의 장래인구추계(결과2)를 보면(표8), 2007년까지는 매년 감소를 하다가 그 후 약간씩 증가하여 2012년에 약 70만명을 넘어 정점을 이룬 후, 이후 계속 감소를 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입학의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각 대학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증대만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며, 입학정원을 못채우는 학교, 학과는 폐과 또는 통폐합이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은 <표8>을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표8> 19세 인구의 장래인구추계  
(단위:명)

연도별	전체	남	여
2004	663,087	345,179	317,908
2005	630,057	328,805	301,252
2006	610,907	320,629	290,278
2007	608,141	320,223	287,918
2008	610,648	325,171	285,477
2009	630,226	334,523	295,703
2010	662,618	352,592	310,026
2011	690,805	366,889	323,916
2012	702,418	374,709	327,709
2013	700,298	374,552	325,746
2014	692,934	369,393	323,541
2015	677,144	359,534	317,610
2020	581,438	304,091	277,347
2025	511,423	265,477	245,946
2030	484,500	251,132	283,368
2040	408,895	210,549	198,34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 III. 전문대학에서의 보건행정 교육

#### 1. 고등교육기관별 보건행정 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에서 보건행정학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59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그후 1963년에 개교한 고려대학교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현재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에 보건행정과가 설립되면서 보건행정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가. 전문대학 및 대학

전문대학에서의 보건행정학 교육은 1963년에 개교한 고려대학교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현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에 보건행정과가 설립된 것이 최초라 할 수 있다. 한편 의무행정과는 1980년 신흥대학과 원광보건대학에 처음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다.

4년제 대학은 197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캠퍼스에 보건학과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3년 보건학과에 보건행정학, 임상병리학, 재활의학기술학 등 5개 전공분야가 개설되었으며, 1987년 보건과학대학으로 승격하여 기존의 5개 정공을 학과로 독립을 시켰다(연세대학교 요람, 2002).

#### 나. 보건관련 전문, 특수대학원

1959년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1977년에는 연세대학교에 보건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1981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설립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22개의 보건관련 전문, 특수대학원이 설립되어 2003년 현재 28개의 보건 관련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 2. 보건행정학의 정의<sup>3)</sup>

보건행정의 정의로 가장 오래되면서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스마일리(W.G. Smillie)에 의한 정의가 있다. 스마일리는 보건행정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사적기관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보건행정의 주체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적기관인 민간단체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공중보건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가메야마(龜山孝一; 1935)는 “보건이란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꾀하는 것이며, 보건행정이란 일반 국민의 보건에 관한 행정, 즉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이라고 하였으며, 하시모토(橋本道夫)는 “보건행정이란 공중보건의 기술을 행정조직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 속에 도입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허정(1989)은 보건행정의 개념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행정법적 보건행정, 행정학적 보건행정, 보건학적 보건행정으로 각각 나누고 보건행정의 개념 역시 “보건, 의무, 약무 업무의 기술적 내용을 가지는 관계법규를 집행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개인간의 통치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 원리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행정법적 보건행정 개념), “공공행정의 일부분이며 보건 분야에 대한 일반 행정원리를 적용시키는 과정”(행정학적 보건행정 개념), “전문화되고 통일된 공중보건학의 모든 지식과 사업의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사업화 하는 과정”(보건학적 보

3) 이 부분은 문재우외(2002)에서 정리한 내용을 주로 인용하였으며, 일부 다른 자료를 보충하여 수정·보완하였음.

건행정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박남영(1993)의 정의에 의하면 “보건행정이란 공적인 책임 하에서 공중보건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는 전략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전술적인 집행방향 설정과 실무기법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였다.

구성회(1997) 또한 “보건행정이란 국민의 수명연장, 질병예방 및 육체적, 정신적 효율의 증진 등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행정 활동”이라고 하여 역시 공공행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허정, 박남영 그리고 구성회의 개념 정의는 보건행정을 정부에서 행하는 공공행정에 만 국한하는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보건행정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생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보건행정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전문대학(당시 의학기술초급대학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에 대한 교과 과정도 이러한 좁은 의미의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한가지 예로서, 1968년 WHO 및 UNICEF의 공동지원으로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당시 우석대학교 의학기술초급대학)에 국내 최초로 위생사 양성을 위한 위생사 양성소의 개설을 들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보건행정은 이상과 같은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는 오늘날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보건행정관련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이 보건행정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sup>5)</sup>.

양재모(1998)에 의하면 보건행정이란 인구집단의 건강유지와 향상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유승흠등(1998)에 의

4) 여기서 당시의 위생사 양성 과정을 간단히 언급하면, 1968년 4월 WHO 및 UNICEF의 공동 지원으로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당시 우석대학교 의학기술초급대학)에 국내 최초로 위생사 양성소가 개설되면서, 여기서 위생에 관한 국민 계몽,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수를 직접 설계, 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 및 보건위생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생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보건소에 배치할 위생사를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수강생의 입소 자격은 전국 각 시,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규 혹은 임시직 공무원이었다.

5)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전문대학 보건행정관련 학과의 최근의 교과 과정이나 그 내용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공행정에 관한 것 보다는 병·의원 등 개별 민간의료기관에 관한 교과목이 많으며, 보건행정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곳도 공무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병·의원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행정 중심의 좁은 의미의 보건행정 정의로는 오늘날의 보건행정을 포괄할 수 없다.

하면 ”보건행정이란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 원리를 적용하여 행정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보건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개념과 영역이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개념 정의의 난이성은 보건행정이란 용어 자체에서 풍기는 혼란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보건과 행정이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이 혼합되어 하나의 개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행정이란 “보건의료의 기술적인 측면과 일반 행정적 측면의 조화와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제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3. 전문대학의 보건행정 교육

#### 가. 전국 전문대학의 보건행정 관련 학과 현황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전문대학의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에서 보건행정관련 학과의 학제는 모두 2년제로 되어 있으며, 2003년 현재 33개 전문대학에서 34개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표9 참조).

전문대학에서의 보건행정관련 학과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보건행정과와 의무행정과로 2분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전국교수협의회(임의단체) 또한 전국보건행정과교수협의회, 전국의무행정과교수협의회등 2개 단체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기준에 있던 보건행정관련 학과의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이 보건행정관련 유사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 보건행정 관련 학과는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의무행정과 이외에 병원경영과, 병원의료행정과, 의료정보관리과, 병원의료정보과, 의료정보시스템과 등 학과 명칭이 다양해지고 있다. 2003년 현재 학과 명칭으로 보건행정 전공을 포함하여 보건행정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17곳, 의무행정과가 5곳 등 아직까지는 이들 2개 학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전체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표9>에서 의료정보시스템과(의료정보시스템 전공 포함)를 보건행정관련 학과로 분류는 해 놓았으나, 이들 학과의 교과과정을 보면 오히려 정보시스템과 같은 공학계열로 분류하는 것이 더 가까운 듯 하다.

여기에 2000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정원 대비 입시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보건행정관련 학과의 경우는 아직까지 학생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어서인지, 학과명의 변경이나 학과 신설등을 통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나.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교과 과정 및 교육 내용

현재의 주요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보건행정 관련 학과에서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표10~표14 참조).

전국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행정과의 교과과정은 병원경영(병원관리, 병원전산 포함)분야, 식품 및 환경위생분야, 보건학 일반(보건행정 포함), 의무기록분야 등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교과과정 중 최근 들어 식품 및 환경위생분야는 환경보건(학)과나 환경위생(학)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이다.

다음 의무행정과, 의료정보관리과, 병원경영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의 개설 교과목과 유사하며, 다만 이들 학과는 개설 때부터 식품 및 환경위생 분야의 교과목은 제외되었다. 결국 각 전문대학에 따라서 병원경영(병원관리 )분야를 강조하거나 병원관련 전산이나 의료정보분야를 강조하거나 하는 특성상의 차이는 있다.

의료정보시스템과의 교과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14>에 Y대학 의료정보시스템과의 개설 교과목을 나타냈다. <표1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정보시스템과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과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병원경영관련 과목은 병원분야의 이해를 돋기 위한 보조적인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정보시스템과의 교과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보건행정과나 의무행정과, 의료정보관리과, 병원경영과 등과는 교과 내용이 상이하고, 보건행정 관련 학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최근 교과과정은 병원경영(병원관리)분야, 보건학 일반(보건행정 포함), 의무기록분야 등에 컴퓨터 및 전산 관련 과목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 보건행정 관련 학과에서의 교육은 앞에서 알아본 교과 과정상의 교과목에 대한 이론 및 실습(실무) 교육이외에 현장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익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실습은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3주 정도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9> 전국 전문대학의 보건행정관련 학과 및 입학정원 현황

학과	대학명	주간	정원 야간	계	학부/계열	비고
보 건 행 정 과	가천길대학	80	-	80		
	고대병설보건대학	50	80	130		
	경북전문대학	80	-	80	보건계열	2004모집
	광양보건대학	60	-	60		
	광주보건대학	100	-	100		
	군장대학	40	30	70		
	대구보건대학	80	-	80		
	대구산업정보대학	40	20	60		
	동주대학	40	-	40		
	선린대학	100	40	140		
	신흥대학	80	40	120		
	안동과학대학	120	-	120		
보건행정전공	전주기전여자대학	40	40	80	보건복지학부	
	진주보건대학	80	-	80		
의무행정과	마산대학	60	30	90	보건복지학부	
	대구과학대학	32	25	57		2004모집
	대전보건대학	80	40	120		
	원광보건대학	80	-	80		
	유한대학	40	80	120		
병원경영과	한림정보산업대학	40	-	40		
	서울보건대학	40	40	80		
병원의료행정과	경북과학대학	80	-	80		경북칠곡
	김천대학	80	-	80		
의료보험심사과	한림정보산업대학	-	40	40		
의료정보관리과	제주한라대학	60	-	60	보건계열	
의료정보과	혜천대학	80	-	80	간호보건계열	대전
	목포과학대학	60	-	60		
	의료정보시스템과	삼육간호보건대학	40	-	40	
	용인송담대학	80	40	120		
의료정보시스템 전공	송호대학	40	-	40	정보산업계열	강원횡성
	병원의료정보과	경동정보대학	70	30	100	경북경산
의료정보 전공 보건행정 전공	춘해대학	50	20	70	보건계열	울산
	위생행정 전공	동강대학	50	-	50	보건계열
보건행정 전공	학점은행제					행정전문 학사취득
총 계		2,132	595	2,727		

<표10> K보건대학(보건행정과)의 교과과정

분야별	교과목
보건분야	공중보건학개론, 보건행정학, 환경보건학, 의료관계법규, 해부생리학, 질병관리론, 병리학개론
병원관리분야	병원경영학, 병원회계학, 병원재무관리, 원무관리, 조직인사, 의료보험론, 의료보험실무, 병원통계,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의무기록분야	의무기록학, 의무기록실습, 질병 및 수술분류, 의료정보관리학, 의료정보실무, 의무기록전사, 암등록 및 QA, 의학용어,
병원전산분야	전산학

<표11> A보건대학(보건행정과)의 교과과정

분야별	교과목
보건분야	보건행정학, 공중보건학 개론, 의료관계법규, 해부생리학, 병리학 개론, 환경위생학, 보건관계법규, 기초의학
식품 및 환경 위생분야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실습, 위생곤충학
병원관리분야	원무관리, 병원회계, 병원회계실무, 인사관리, 의료보험, 의료보험 실습, 한방의료보험실습, 산재 및 자보 실습, 병원통계
의무기록분야	의무기록학, 의무기록실습, 질병 및 수술분류, 암등록, 의학용어, 의료정보실습, 의료정보관리학, 적정진료보장, 의무기록전사
병원전산분야	전산학, 전산학 개론, 의료엑셀실습, 병원전산 실습

<표12> D보건대학(의무행정과)의 교과과정

분야별	교과목
보건분야	공중보건학개론, 기초의학, 약리학, 의료관계법규, 해부생리학, 병리학개론
병원관리분야	원무관리, 조직및인사, 병원회계, 의료보험, 의료보험실습, 병원통계, 보험심사및포괄수가
의무기록분야	의무기록학, 의무기록실습, 질병 및 수술분류, 의료정보관리학, 의무기록전사, 암등록, 적정진료보장, 의학용어
병원전산분야	전산학, 병원전산실습

<표13> S보건대학(병원경영과)의 교과과정

분야별	교과목
보건분야	공중보건학, 보건통계학, 보건의료행정, 사회보장론, 해부병리학, 임상병리학, 임상약리학
병원관리분야	병원관리학, 병원인사조직관리학, 원무관리학, 병원회계학, 병원재무관리학, 병원기획론, 병원홍보 및 마케팅, 의료보험론, 의료보험 실무, 보건의료관계법규
의무기록분야	의학용어, 의무기록관리학 및 적정진료보장, 질병 및 수술분류, 의무기록실무, 병원통계, 암등록, 의무기록전사
병원전산분야	초급병원전산실무, 중급병원전산실무, 고급병원전산실무, 의료정보 관리, 병원전산통계분석, 병원웹관리

<표14> Y대학(의료정보시스템과)의 교과과정

분야별	교과목
보건분야	의료행정, 기초의학
병원관리분야	병원경영 실무, 의료경영학, 병원재무관리, 의료보험실무, 의료관계법규, 의료서비스 마케팅
의무기록	의학용어
병원전산 및 병원정보	병원정보시스템(HIS), 의료정보시스템 실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실용전자계산일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실습,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정보처리실습, 정보처리실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래밍

#### 다. 취업현황과 졸업 후 진로

현재 보건행정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졸업후 진로는 크게 취업과 대학 편입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행정관련 학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6,70년대 졸업생들은 보건직 공무원으로의 진출이 많았으며, 전문대학에서의 교육 또한 기술행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으나, 80년대 이후가 되면서 보건직 공무원으로의 진출은 아주 드물게 된 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의 진출이 많아지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 보험

회사등 손해보험회사로의 진출이 늘고 있다. 병·의원등 의료기관 취업은 보험, 원무행정 부문과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자의 의무기록실 취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의약 분업 이후에는 약국과 의료컨설팅 회사등 민간의 의료 관련회사의 진출도 눈에 띤다.

결국 최근 보건행정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졸업후 진로는 의료기관 및 관련업체로의 진출이 많으며, 그에 따라 각 보건행정관련 학과의 교과과정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중심이라 할 수 있다.

#### 라. 취득가능한 면허 및 자격증

현재 보건행정관련 학과 졸업 전후로 취득 가능한 면허 및 자격증은 <표1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취득 가능한 면허에는 의무기록사와 위생사가 있으며, 취득가능한 민간 자격증으로는 병원행정사(국가공인 민간자격) 및 의료보험사, 컴퓨터활용능력(PCT), 보건정보교육사 등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여기서는 보건행정관련 학과 졸업전후로 취득 가능한 면허 및 자격시험 중 현재 많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응시하고 있는 국가면허인 의무기록사와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표15> 취득가능한 면허 및 자격증

구 분	내 용
면허	의무기록사, 위생사
자격증	병원행정사(국가공인 민간자격) 및 의료보험사, 컴퓨터활용능력(PCT), 보건정보교육사, 병원코디네이터, 사회보험심사관리사, 의약정보관리사, 의학사무정보관리사, 보건정보관리사, 문서실무사, 정보검색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실기교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 (1) 의무기록사 시험

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에 관한 교육이 실시된 것은 1983년부터이며, 당시 전국 16개 대학 보건행정과와 의무행정과에서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1985년 제1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이 시행된 후, 2003년 현재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자는 8,818명에 이르고 있다. 2003년 1월에 실시된 시험에서 1,110명이 응시 498명이 합격하여 49.8%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표 16>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현황(누계치)

연도별	의무기록사수		
	남	여	누 계
1985	75	321	396
1990	274	1,849	2,123
1995	886	3,975	4,681
2000	946	6,698	7,644
2001	1,014	7,136	8,15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2.

2004년도 의무기록사 시험부터는 해당 관련 학과에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이수자에 한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의무기록사 시험 응시를 위해 이수해야 할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이수 학점은 의무기록관리학[17학점;의무기록(관리)학, 의무기록 실습, 질병 및 수술분류, 병원통계, 의무기록전사, 적정진료보장(Q&A), 암등록], 의학용어(6학점, 이하 괄호내는 최소이수 학점), 공중보건학개론(3), 의료관계법규(2), 병리학개론(3), 해부생리학(3), 의료정보관리학(2), 전상학(2), 의료보험(2) 등으로 총 9과목 40학점을 이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는 <표9>의 34개 보건행정관련 학과중 19개 학과만이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7> 의무기록사 시험과목 및 배점

과 목	점수(문제수)
필기시험	의료관계법규 20 (20)
	의학용어 60 (60)
	공중보건학개론 20 (20)
	의무기록관리학 100(100)
실기 시험	100 (40)
총 계	300(240)

## (2) 병원행정사와 의료보험사

병원행정사와 의료보험사 민간자격시험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주최가 되어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1994년 의무행정관리사 II급 자격시험으로 처음 시

행되었다. 1999년부터 병원행정사와 의료보험사로 2원화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병원행정사는 국가공인을 취득하였다.

<표18> 병원행정사 민간자격 취득현황

연도별	취득자수	비고
1994. 5	296 명	
1995. 5	333 명	
1996. 5	395 명	
1997. 5	256 명	
1998. 3	158 명	
1999. 3	641 명	병원 행정관련학과 졸업자 응시 가능
2000. 2	1,500 명	
2001. 2	1,277 명	
2002. 2	1,493 명	2002. 1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2002. 12	2,387 명	
계	8,736 명	

<표19> 병원행정사 시험과목

시험 과목	문제수(%)
공중보건학, 의료제도론	12 (10.0)
해부병리, 의학용어	12 (10.0)
원무·보험	21 (17.5)
회계·재무	20 (16.7)
조직·인사	19 (15.8)
병원전산	18 (15.0)
의료관계법규	18 (15.0)
계	120(100.0)

#### IV. 전문대학 보건행정교육의 문제와 발전 방안

지난 20여년간 전문대학의 총 학생수나 입학정원이 급증해 왔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표1~표3).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의 경우 양적 증대

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로 입학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2004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미달사태가 전년도에 비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 전문대학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경우 2003년도 입시에서 타 학과에 비해 정원미달사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이다. 결국 보건행정 관련 학과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질적 우위로 경쟁력 확보하거나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4,5년간에 발생하고 있는 보건행정 관련학과 명칭의 다양화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타 대학 혹은 같은 대학 내에서의 다른 학과와의 차별화 시도라 생각된다.

## 1. 전문대학 보건행정교육의 문제

### 가. 면허(및 자격) 취득과 취업의 연계성 부족

일반적으로 어떤 면허나 자격의 취득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보건행정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취득하는 면허나 자격증은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듯 하다. 예를 들면 의무기록사에 대한 기존 병원들의 수요가 거의 충족된 상태에서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이 병원 의무기록실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다른 민간 자격증은 더욱 더 그러하다. 최근 많은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들이 응시하는 병원행정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 나. 보건행정 교육 체계

우리나라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보건행정을 포함한 보건학 교육 체계를 보면 과거부터 학교수 혹은 학생수 면에서 전문대학 수는 많고, 4년제 대학수는 적고, 대학원수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보건행정과가 만들어지던 6,70년대만 하더라도 전문대학이 보건행정인력을 배출하는 완성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지만,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따라 '80년대를 전후해 4년제 대학의 학과가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전문대학 보건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많은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계속 교육(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을 받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 온 게 사실이다. 물론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학과(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과기공과 등)의 경우는 교육의 일관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은 보건행정 관련학과 보다 더욱 심각한 편이다.

#### **다. 보건행정 교육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간 차이**

보건행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대학간에 교과과정이 유사하고 개설과 목명이 같은 경우가 많다. 거의 동일한 교과과정하에서 같은 교재로 같은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대학과 대학간의 계속교육과 연계교육차원에서는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어떤 과목이 교육되어야 하고 개설된 교과목의 내용이나 수준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판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도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교수되어야 할 교과과정과 과목명을 정하고,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모두 개설이 필요한 공통의 과목이라면 전문대학과 대학 각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 내용과 교육수준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 **라. 보건행정학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의 필요성**

우리나라도 보건행정학 교육을 시작한지 40여년이 넘었으나, 보건행정학 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교재 하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까지 보건학을 이끌어 오신 많은 선배 연구자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술한 교재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나, 이를 서로 비교해 볼 때, “보건행정학”이라는 명칭은 같으나 내용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이는 보건행정을 전공한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 **마. 보건행정의 정의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앞에서 보건행정의 정의에 관해 살펴보았듯이 과거 6,70년대의 보건행정과에서의 보건행정 교육은 보건행정의 정의(협의의 개념)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 전문대학 보건행정 관련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보건행정의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병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전문대학 보건행정교육 발전 방안**

#### **가. 현장실습 강화와 인턴쉽**

교과과정(표10~표14 참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대학 보건행정 관련학과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습(실무)교육, 그리고 의료기관등 현장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보건행정 관련학과의 경우 현장실습은 방학을 이용

하여 1~3주일 정도 시행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실무)교육을 통해 배운 전문과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실천적 기술을 의료현장에서 배우게 함과 동시에 전문직업인으로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의료현장의 관리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태도를 익히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한편, 인턴쉽이란 학생이 재학 중에 자신의 전공분야에 가까운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기업등에서 실제 업무체험이나 취업 경험을 하는 것이다.

현장실습과 인턴쉽은 모두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전공분야의 현장을 보게 하고,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 중 적정한 시기에 현실 사회에서 전문기술의 활용 상황을 실제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전공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과 현장 실무와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이해시키며, 더 나아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성을 함양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전문대학의 보건행정 관련 학과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고도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앞으로 직업교육의 고유 특성과 전문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고 제고시켜야 한다.

전문대학이 완성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지만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따라 직업의 전문성도 한층 더 심화되고 있어 전공의 심화과정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2년제 교육과정을 현행대로 운영하되, 이들이 자기 전공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3~4학년의 전공심화과정을 전문대학 내에 부설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49조에 서도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보건행정 관련 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교육 수요자인 졸업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서 졸업생들이 전공영역과 관련이 없는 학과에 편입하는 교육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졸업생들에게 보건의료 산업현장의 직무와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학과목

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 미래의 사회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최신의 학문적 지식과 과학-기술적 방법론을 교육함으로써 전문대학이 계속교육기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 현장 근무자를 교육함으로서 전문성을 높혀 주고, 현장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V. 결 론

오늘 주제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의 보건행정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보건행정 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논하는 자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현재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근 2-3년간에 나타나고 있는 정원미달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일 것이다. 학생모집을 어떻게 잘해서 입학정원을 채우고 한해 한해를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느냐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행정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로서는 다른 학과와의 학생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건행정관련 학과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우수인력을 양성 배출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WTO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건행정학도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편람”, 각연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2.
- 허정, 「최신보건행정학」, 신광출판사, 1989.
- 박남영, 보건행정학, 고문사, 1993.
- 구성회·외, 공중보건학, 고문사, 1997).
- 양재모, 공중보건학 강의, 수문사, 1988.
- 유승흠 외, 보건행정학 강의, 수문사, 1998.
- 존 J. 헨론(허정 옮김), 「보건 행정의 제 원리」, 1979.
- 문재우, 김기훈,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02.
- 강창렬, “보건행정변화와 발전방향 모색 – H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2003년도 전국보  
건행정과 교수협의회 하계세미나 연제집, pp.26-53, 2003.7.10
- 이준협, 이태로, 임국환, 김영환, “학점은행제에 의한 보건행정학사 표준교육과정 개  
발”, 보건과학연구논집, 제9권 1호, pp.64-69, 2000.
- 최종학, 윤범철, 조경진, 이준협, 임국환, 고성진, 최경호,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한 의학기  
술부문의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보건과학논집, 제29권 1호, pp.62-77, 2003.
- 최종학, 김유현, “보건계 전문대학 교육의 현황 분석”, 보건과학연구논집, 제6권 1호,  
pp.1-8, 1997.
- 김경호, “시장개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장의 변화 전망”, 제11회 보건과학 학술세미  
나 자료집(2003.5.1개최),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보건과학연구소, pp.23-40,  
2003.
-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保健大學 35年, 대학서림, 1998.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0년도 학점은행 운영편람, 2000.
-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요람”, 2002
- 橋本正己, 衛生行政, 繢文堂, 1963.
- 龜山孝一, 衛生行政法, 1935
- W.G. Smillie,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Macmillian, 1936)